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상과 실행과 건축

(목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1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1)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거룩하게 됨으로써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완전히 얻음

성경: 엡 1:3-6, 히 2:10-11, 살전 5:23

I.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는 세 가지 주된 항목이 있다.

- A. 교회는 반드시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 엡 1:4-5.
- B.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원수에게 알려진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시(詩), 곧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지혜롭게 전시하는 것이 된다 — 엡 3:10, 2:10, 고전 1:30.
- C.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것이다 — 엡 1:10, 19-23.

II.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의도하신 영원한 목적은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단체적인 방식으로 그분의 표현이 되는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 엡 1:3-6, 3:11, 롬 8:28-29, 요 1:12-13, 계 21:7.

- A. 로마서 8장 19절은 온 창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며, 히브리서 2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한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신다 — 고후 3:18, 4:16-18.
- B. 현재 창조물은 쇠퇴하고 썩는 자연의 법칙 아래 속박받고 있다. 창조물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 롬 8:17-21.

III.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영원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어 ... 거룩하고 ...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셨다 — 엡 1:4-5.

- A. ‘거룩하고’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되고 분별될 뿐만 아니라, 속된 모든 것과 다르게 되고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과 다르시고 구분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 1.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온 존재가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침투되고 적셔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 2.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벧후 1:4)이고,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 자신으로 침투되는 것이다.

- B. 신성한 아들의 자격은 우리가 하나님(성령이신 거룩하신 분)과 연합되어 완전히 거룩하게 됨으로써 성취된다 — 엡 4:30, 뵤전 1:15-16.
1.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체 넣으시고 우리와 연합시키고 계신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것, 즉 그분 자신에 의해, 그분 자신 안에서, 그분 자신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인간 본성은 조금도 남김없이 신성한 본성과 연합될 것이다 — 비교 례 2:4-5.
 2. 구약의 예표에서 성막의 널빤지의 모든 부분은 금으로 입혀졌다. 이 예표의 성취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교회와 연합시키시어, 우리를 완전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신다 — 출 26:28-30.
 3. 신약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들의 자격은 다음의 항목들을 의미한다.
 - a.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으로 얻은 것 — 요 1:12-13, 3:6, 요일 5:11-12, 뵤후 1:4.
 - b.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자라서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 — 엡 1:6, 4:15-16, 골 2:19.
 - c.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으로 침투되고 적셔지고 입혀지는 것 — 례 2:4-5, 살전 5:23.
 - d. 우리가 하나님의 온 존재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삼으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격을 갖추는 것 — 엡 1:14, 롬 8:17.
 - e. 결국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고 신성하게 되는 것 — 엡 1:4, 계 21:2, 10.
- C.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에 의해 그분의 아들들이 된다 (롬 15:16, 갈 4:6).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것을 영적인 축복, 곧 그 영에 의한 축복이라고 부른다.
1. 아들의 자격을 위한 거룩하게 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의 자격 안에 살지 않을지도 모른다 — 롬 15:16, 8:4, 엡 5:26.
 2. 오늘날 우리는 그 영에 의해 살고, 그 영에 의해 봉사하며, 그 영에 따라 행동하고, 온종일 전적으로 그 영에 의해, 그 영과 함께, 그 영에 따라 처신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 롬 1:1, 9, 8:4, 빌 3:3, 스후 4:6.
 3. 그런 다음 우리는 그 영 안에서 합당한 양육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한다. 우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거룩한 말씀을 읽는 것과 영적인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는 것과 집회에 오는 것이다 — 요 8:31-32, 엡 5:26, 계 2:7, 시 73:16-17, 22-26, 77:13.
- D.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며,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해졌다 — 엡 1:4, 비교 3:17, 4:2, 15-16, 5:2, 6:24, 계 2:4.
1. 여기에서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 이러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2.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다음에 우리도 또한 이 신성한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사랑의 상태와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 요일 4:19, 시 31:23상, 116:1, 막 12:30.

- IV. 구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유기적으로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영광, 곧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 안으로 이끄신다. 거룩하게 함은 하나님께서 ‘아들화하시는 것’이다 — 히 2:10-11, 엡 1:4-5, 살전 5:23, 롬 5:10.
- A. 히브리서 2장 10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한다. 이것은 거룩하게 함이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임을 보여 준다.
- B.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5절은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한다. ‘거룩하게 되어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은 거룩하게 함이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보여 준다.
- C.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함은 신성한 경륜의 중심이며 신약의 계시의 중심 사상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함에 달려 있다.
- D. ‘신성한 거룩하게 함’은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탱하는 노선이며, 이 신성한 경륜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써,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함이 지탱하는 노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행되는 하나님의 경륜의 일의 각 단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1. 찾는 거룩하게 함, 곧 초기의 거룩하게 함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여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은 찾으시는 영, 곧 책망하시는 영으로 인한 것이었다 — 벰전 1:2, 눅 15:8-10, 17-21, 요 16:8-11.
 2. 구속하는 거룩하게 함, 곧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함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것이며,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다 — 히 13:12.
 3. 거듭나게 하는 거룩하게 함, 곧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함의 시작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유기체, 곧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형성한다 — 고후 5:17, 요 1:12-13, 3:5-6, 8, 벰전 1:3, 딤후 3:5.
 4. 새롭게 하는 거룩하게 함, 곧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함의 연속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혼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새 창조물의 일부가 되게 한다 — 롬 12:2하, 엡 4:23, 고후 4:16.
 5.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함, 곧 매일의 거룩하게 함은 그리스도의 요소로 우리를 신진대사적으로 재조성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한 부분인 새로운 조성체로 만든다 — 고전 3:12, 고후 3:16-18, 롬 12:1-2, 시 68:19.
 6.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룩하게 함, 곧 형태를 짓는 거룩하게 함은 우리를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를 지어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게 한다 — 롬 8:29, 빌 3:10.
 7.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하게 함, 곧 완결하는 거룩하게 함은 우리의 몸을 변형시킴으로 우리의 몸을 구속하여, 우리를 영광 가운데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이루어진 완결된 합병체가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의 생명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되어,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한다 — 빌 3:21, 롬 8:23, 살전 5:25, 계 21:2-3, 7, 9-11, 22.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I. 신성한 거룩하게 함은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탱하는 노선임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신성한 거룩하게 함이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탱하는 노선이라는 것을 보기 원한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나는 ‘경륜’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경륜’이라는 말 대신에 ‘계획’이란 말을 사용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계획이지만, ‘계획’이란 말은 ‘경륜’이라는 말만큼 많은 의미를 전달해 주지 못한다. ‘경륜(economy)’은 헬라어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온 단어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의 의도이며, 하나님은 이 의도를 목적으로 삼으셨다. 이 목적이 하나님의 경륜이 되었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이다. 거룩하게 함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큰 중점이다. 그것은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탱하는 노선이다. 우리는 ‘지탱하는 노선’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낚시하러 갈 때 그에게 낚시줄이 필요하다. 낚시줄은 낚시를 하기 위해 지탱하는 줄이다. 그 줄은 물고기를 붙잡는다. 바꾸어 말해서, 그 줄이 그의 낚시를 주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함이 지탱하는 노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각 단계가 우리에게 이루는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우주의 어떤 부분도 거룩하지 않았다.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타락하기 전에도 사람은 거룩하지 않았다. 온 우주 안에서 오직 한 분, 곧 하나님 자신만이 거룩하시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완전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를 거룩하게 하지는 않는다. 천사들은 완전하고 선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본질을 가져야 한다. 만일 어떤 것을 강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강철의 본질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거룩하다면 당신은 반드시 거룩한 본질을 가져야 하며, 온 우주 가운데 거룩한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 불린다(계 21:2). 이 성은 금 위에서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건축된다(계 21:18-21). 진주는 문을 위한 것이고, 보석은 기초가 있는 성벽을 위한 것이다. 문과 성벽은 금 위에 건축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기초로 놓았고,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 기초 위에 건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우리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한다면 우리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한다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고전 3:11-15). 여기서 바울은 금이 재료라고 말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금은 건축물을 ‘위한’ 재료가 아니다. 금은 새 예루살렘의 부지이다. 새 예루살렘은 금 위에 건축된다. 사람이 한 구획의 땅 위에 집을 건축할 때, 그 땅은 건축물을 ‘위한’ 재료가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 성은 금이다. 그 길이 금이다. 이 금 위에 문이 건축된다. 이 금 위에 기초가 놓이며 또한 성벽이 건축된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한다.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본성만이 거룩하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도 거룩하고, 구약에서 거룩한 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다고 말하며 논쟁할지 모른다. 성전은 거룩했으며, 성전에 두어진 금은 성전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다(마 23:17). 제사장들이 거룩했고, 제단이 거룩했으며, 제물들이 제단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다(마 23:19).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도 역시 거룩하게 여겨질 수 있다. 제사장들의 옷까지도 기름 바름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다. 기름이 발라진 후에 옷이 거룩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본성에 있어서의 참된 거룩함이

아니다. 성막과 그것에 관계된 것들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고, 다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높은 의미에서 거룩하게 함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본성과 거룩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창조되거나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평범한 인간으로 창조되었고, 더욱이 타락한 죄인들이 되어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을 때, 이 새로운 출생이 우리의 본질을 혁신했다.

거듭남은 재구성하는 것이다. 거듭남은 본질적인 무언가로 우리를 재구성한다. 이 본질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분 자신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태어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 곧 우리의 본성과 생명이 되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정확히 똑같이 거룩하다. 하나님은 금이시며, 우리 또한 본성에 있어서 금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만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릴 수 있다.

한 면에서 우리는 모두 거룩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다양한 단계에 걸쳐 있다. 여러 해 동안 교회 생활 안에 있는 형제는 최근에 거듭난 새로운 형제보다 더 거룩하다. 이 새로 거듭난 형제의 영은 본질이신 하나님에 의해 거듭났지만, 그의 존재의 적은 부분만이 거룩하다. 그의 혼은 하나님의 본질에 의해 많이 만져지지 않았다. 그러나 또 다른 형제는 사십여 년 동안 거룩하게 되는 체험을 했을지 모른다. 그의 영이 거룩하게 되었고, 그의 혼 또한 많이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몸의 구속, 곧 우리 몸의 변형으로 완결될 것이다. 따라서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첫째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때까지 줄곧 계속된다. 회개와 영광스럽게 됨 사이에는 거듭남, 새롭게 됨, 변화, 같은 형상을 이룸, 우리 몸의 변형 곧 우리 전 존재의 영광스럽게 됨이 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신성한 거룩하게 함의 노선이다. 그러므로 이 노선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을 지탱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신성한 거룩하게 함이라는 낚시줄에 ‘걸려든’ 사람들이다. 우리는 인류라는 ‘대양’에 있었지만 이 낚시줄이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 줄에 걸려든 것이다. 우리가 이 줄에 걸려든 것은 우리가 변형될 때 완결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노선은 완성될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었다. 이 사람이 한 말 속에는 낚시바늘이 감추어져 있었고, 그 낚시바늘이 우리를 낚았다. 우리는 책망받아 회개하고 믿었다. 그때 우리는 거듭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성한 거룩하게 함의 지탱하는 노선에 계속 있기 위한 것이었다.

신성한 거룩하게 함은 회개부터 영광스럽게 됨까지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체험들을 지탱해 준다. 신성한 거룩하게 함은 우리의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됨과 변화와 같은 형상을 이룸을 거쳐 우리 몸의 구속에 이르기까지(엡 1:14, 4:30) 계속해서 일어난다. ‘...에 이르기까지(unto)’는 ‘...의 결과를 낳는’을 의미한다. 우리 몸의 구속은 신성한 거룩하게 함의 완결이다.

그러한 거룩하게 함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듭으로써,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함은 신성한 아들화이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의 부모님에게 아들이 되었지만, 거듭남에 의해 신성하게 아들화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을 갖지 못하고 가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은 갖고 있다. 원칙적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아들화함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아들들로 만드신다. 거듭날 때 우리는 아들화되었지만, 그 아들화는 출발 곧 입문에 불과하다. 우리는 거듭난 후에 성숙에 이르도록 자랄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혼이 완전히 아들화될 때 우리는 성숙한 것이다. 여전히 약함과 질병과 정욕과 죄악들로 가득한 우리 몸이 결국에는 변형될 것이다. 즉 완전히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II. 신성한 거룩하게 함의 단계들

A. 찾는 거룩하게 함 — 초기의 거룩하게 함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경륜을 세우셨고, 이 경륜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영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벧전 1:2). 우리는 아담 안에, 죄 안에, 죽음 안에 잃어버려졌다. 우리는 죄와 죽음이 가득한 파멸의 무더기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 영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결국 우리를 찾으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셨다. 그다음에 그 영은 우리의 영을 감동시켜 회개하게 하셨다. 이것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초기의 거룩하게 함이었다(눅 15:8-10). 이 찾는 거룩하게 함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되돌렸다(눅 15:17-21).

B. 구속하는 거룩하게 함 — 위치적인 거룩하게 함

구속하는 거룩하게 함, 곧 위치적인 거룩하게 함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히 13:12) 우리를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있던 곳을 바꾸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위치적인 거룩하게 함이다.

C. 거듭나게 하는 거룩하게 함 —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의 시작

우리의 거듭남은 일종의 거룩하게 함이다. 거듭남은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의 시작이며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후 5:17).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중심인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우리 영을 만지심으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자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든다(요 1:12-13).

D. 새롭게 하는 거룩하게 함 —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의 계속

새롭게 하는 거룩하게 함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혼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함으로써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다(롬 12:2하, 엡 4:23).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생각은 우리 혼의 주도적인 부분이다. 우리 혼은 세 부분,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우리가 우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 우리 생각 안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우리 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새 창조물의 일부가 되게 한다(갈 6:15).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의 일부가 되었지만, 우리 혼은 그렇지 않다. 우리 혼은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창조물의 일부가 될 것이다.

E.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함 — 매일의 거룩하게 함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날마다 우리 겉사람 곧 우리 옛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 곧 우리 새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뿐 아니라 매시간, 심지어 매분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 환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최상의 도구이다. 하나님은 항상 신성한 요소로 우리를 내적으로, 또한 신진대사적으로 변화시키고 계신다.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함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요소로 신진대사적으로 재조성하는 매일의 거룩하게 함이며, 우리를 새로운 조성체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일부가 되게 한다(고전 3:12). 이것은 일종의 재조성이다. 다시 말하면, 옛것을 배출하고 그리스도의 요소를 더하여, 새롭게 대치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지체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요소로 조성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새로운 조성체가 되어야 한다.

F.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룩하게 함 — 형태를 짓는 거룩하게 함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룩하게 함은 우리를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 짓는 거룩하게 함이다(고후 3:18). 과일나무 안에는 형태를 짓는 생명의 원칙이 있다. 복숭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 '복숭아'라는 특별한 모양으로 형태가 이루어진다. 복숭아의 생명의 통제하는 법이 복숭아의 형태를 만든다. 모든 생명에는 통제하는 법이 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영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형태 짓는 요소가 있어서 우리를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 짓는다. 이렇게 형태를 짓는 것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현이 된다.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영에 의해 형태가 지어졌기 때문이다.

G.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하게 함 — 완결하는 거룩하게 함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하게 함은 우리 몸을 변형시킴으로써 몸을 구속하는, 완결하는 거룩하게 함, 곧 완성하는 거룩하게 함이다(빌 3:21). 우리의 사악하고 타락한 몸이 질병, 약함, 죽음, 정욕, 죄악 등으로부터 구속됨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그리고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의 표현이 될 것이다(롬 8:23). 이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은 최고의 단계에 도달한다. 이것이 일곱 단계의 신성한 거룩하게 함에 대한 계시이다.

신성한 거룩하게 함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완결되신, 복합되신, 생명 주시는, 내주하시는 영의 섬세한 일이다. *(우리의 영광 함께하는 그 영, 153-161쪽)*